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세대간 고용갈등과 사회통합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들은 “우리 아버지 빼놓고 나이 든 사람들은 빨리 직장을 그만 두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양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 기회가 인구 증가만큼 늘어나지 못하여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 시대가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하니 대졸 자녀들은 졸업하고도 취업하기 어려워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더구나 모두가 선망하는 관청은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대졸자가 체감하는 취업난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고령자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조기 퇴직의 압력에 물려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촉진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은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29세 이하)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자 30세 이상의 세대는 취업에서 29세 이하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이다. 학교 졸업과 취업 연령이 늦어지며 일어나는 연령간의 고용갈등 문제이다. 하나의 문제 해결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예상했던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야 지금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대간 대체효과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은 일자리 수가 제한되어 있어 세대간 갈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소득 양극화와 비정규직 증가, 빈곤층의 확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확대 등 여러 부문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걱정하는 지적이 많다. 세대간 고용갈등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데도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데 너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자유주의 이론이 발전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점차 실업·빈곤 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시민권’ 개념이 형성된다. 그런 기반 위에서 사회통합이 추진되었기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책의 목표를 ‘사회통합’이라고 내세울 수 있었다.

또한 사람을 실천하려는 기독교 교리와 함께 사회가 연대의식으로 여러 계층을 아우르며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관행이 마련된 것이다.

EU에서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란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피하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의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캐나다 정치학자 제인 켄슨은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를 소득감, 포용, 공평한 정치참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차이에 대한 관용과 인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개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어느 누구도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시켜야 한다. 포용, 관용, 사회 구성원 간의 상생 등 이러한 것이 모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의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이 최근 구체적인 입법으로 실현되면서 세대간 고용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법적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고령자들은 기업에 그만큼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어 아버지 세대는 크게 환영한다. 그런 반면 청년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어 취업 기회를 얻기 힘들다. 세대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 지난 달 의결된 청년고용

그랬다면 핵심 관심사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대립되는 상황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모두다 차지하겠다고 하면 세대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계층과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고,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양보와 타협을 통해 우리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社說

박 정부, SOC 예산도 호남 확대할 건가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이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광주·전남 등 호남 낙후지역에 불리한 지점을 내놨다. 지역균형발전운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SOC(사회간접시설) 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려놓았다. SOC 신규사업은 역대 최초로 기중사업에 우선 순위와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침이 광주·전남 등 낙후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현재 수도권과 영남은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됐으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광주·전남은 지역발전의 견인을 위해 SOC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투자 효율성을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도 4대강 사업을 이유로 이 지역의 현안 SOC 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아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러한 후대집이 개선되리라 기대했던 지역민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 지역 현안사업 확대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되레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도 광주 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SOC 사업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말이 더는 허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SOC 사업 역대 지점을 철회하고, 낙후도가 고려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또다시 호남을 확대하는 예산편성을 한다면 민심이란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 지침을 계속 강행한다면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호남 확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광주 고교 이어 중학생마저 학력 저하라니

광주지역 고교에 이어 중학생들마저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한다. 학교 내신 최하등급인 E등급 비율만 하더라도 30%를 넘는 중학교가 절반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실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광주가 이마저 자존심을 구기게 된 셈이다.

광주일보와 교육업체 하늘교육이 2012학년도 전국 중학교 1학년 2학기 학년·교과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평균 최하등급인 E등급 비율이 광주는 30.1%, 전남은 29.7%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전체 학교 85개교 중 44곳(51.8%)에 이른다. 전국 평균의 30.1%과 비교할 경우 사·도·기운대 중위권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E등급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학생들의 학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중학교 때 학력이 떨어지면 고교에서 따라가기가 어려워 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주지역 고교는 수능 1등급 비율이 7년 연속 전국 최상위라는 급자답을 쌓아왔지만 지난 2년 이후 급격히 학력이 떨어지면서 중위권 수준으로 추락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확연히 내몰고 있는 것도 학업 성취도 하락에 따른 불안에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학생들의 성적 저하는 무엇보다 교육의 안정과 균형보다는 급격한 정책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실력보다는 인성 교육을 강화해온 게 사실이다. 실력이 교육의 전부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 교육감은 현재 광주교육이 처한 상황을 직시해 안정과 균형을 통한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정책의 주안점을 뒀야 한다. 오랜 기간 지역 차별 속에도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킨 게 바로 실력이 아니었는가.

종교칼럼



도 권
보국사 주지

천상천하 아등고귀(天上天下 我等高貴)

한 경외이며 제 새끼들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한 사람이 사람구실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가 수십 년 동안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각자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있어 여기까지 왔음을 안다. 그러나 삶은 녹록지 않아 치열한 경쟁과 그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욕망의 갈데에서 좌절하고 분노하며 서로 해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는 빼돌려진 욕심을 해소하고자 불법과 위법의 공간에서 자신을 함부로 굴리며, 왜곡된 공간에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 IT시대가 발달할수록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음란물이 유통되면서 심신을 파헤치게 만들 수 있는 가상 공간이 넓어지고, 급기야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개인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점점 심각해져 기성세대가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주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목표의식은 저급한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욕망표출과 해소에 우선 순위를 둔다. 이는 맹목적인 물질숭배를 하

는 기성세대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에 독버섯처럼 퍼져 기생하고 있는 각종 폭력적, 선정적 게임의 말바닥에는 어떠한 수로든지 돈을 벌고자하는 어른들의 의식이 투영돼 있다. 그것이 날카로운 부메랑의 날이 되어 우리 자녀의 등을 치고 있음을 어찌 모르는가?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우선 주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피사로워야 하고 의심 없이 서로 아끼 수 있는 순수한 신뢰를 키움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찍이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즉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네”라고 한 것은 자존의식을 들어내는 자기의 독립적 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기성세대건 신세대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모님의 덕할 수 없는 사랑, 친구와의 우정, 이웃의 연할,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 덕분에 된 것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요’라며 내 잘못이 아니라 모두

의 잘못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한탄한다. 자기 결점을 보완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자신과 사회를 원망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단군 이래 물질적 환경은 가장 부유할진대 우리는 부유함에 목말라 “더더더...”하며 바닷물을 들이킨 표류하는 뱃사람처럼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를 천박하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서로를 해하는 욕망의 시작일 것이다. 이 욕망의 틀쫄음은 자기 자신을 천한 존재로 타락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욕망을 쉬게 하고, 이 따뜻한 봄날 햇빛처럼 포근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받았다는 존재임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확대해석인 ‘천상천하 아등고귀’(天上天下 我等高貴), 즉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우리는 높고 귀하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존중한다면 이 인간세상을 갈등케하는 원인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다.

기고

물그릇과 국민 행복시대



오 한 모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적소에 보내는 일을 수행한다.

이 물그릇의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하며 투자된 자금이 요금(세금)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기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가 수자원 전체가 규모 경제의 지배를 받기에 대부분 국가에서 수자원 개발권리는 국가가 맡는다. 국가가 건설한 물그릇은 국민 모두가 주인이며 물그릇은 국민 관심과 사랑이 투입되는 만큼 최적 효율의 상태로 관리된다.

그릇에 담긴 물은 국가 전체가 주인인 자원이기에 물 쓰는 사람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용수 공급이 쉬운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물값을 싸게 받고 넓은 땅에 드문드문 살고 있는 농촌의 농부에게나 비싼 물값을 받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편익은 누구에게 더 받고 누구에게 덜 받는가를 나눌 수 있는 성격이 못된다.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소득이 국민 전체로 확산되는 소득 재분배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에 가져다준다. 물(수자원)은 이런 이유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에 남게 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차등 요금적용은 공공요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물(수자원)이 지닌 공공재화적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물은 수평계(level)라는 장비를 통해 땅이 평평한 상태를 확인하는 수평 기준점으로 이용되며, 수문은 땅을 포함한 구조물이 어느 정도 높이(표고)에 위치하는지를 타내는데 수위의 기준점(Bench mark)이 되기도 한다.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며 빈곳을 먼저 채우는 특성 때문에 지상의 인공 구조물의 측정 척도가 된다.

정부는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중이다. 다수의 복

지 과제 중 최우선 정책은 수자원(물 복지) 정책 되었으면 한다.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고, 소득이나 지역에 무관하게 전국 동일 요금은 소득 재분배로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며 물 관련 재해(홍수, 가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신뢰가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면 우선 추진되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물이 수평과 수직의 기준이 돼 또 물복지정책은 다른 복지정책의 Bench mark가 될 것이다.

노자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나온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덕’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물처럼 모든 갈등과 대립을 중단하고 맑고 건강한 환경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위해 힘을 모은다면 선진형 물복지를 실현해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가정의 달 맞아 감사편지 쓰기 캠페인 벌였으면

요즘 세대가 갈수록 자신만 챙기고 주위는 배척하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어 안타깝고 서글프기 그지없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와 가르치신 선생님께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나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가 자신들의 욕망이나 요구를 만족시

켜 주지 않으면 부모님께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거나 학교 선생님이 훈육상 약간의 질책이나 제재만 가해도 대들거나 폭행까지 일삼는다.

과거에 동방예의지국으로까지 불렸던 우리나라가 어찌 오늘날 이토록 폭력화되고 흉포화되며 어른들을 경시하고 있다. 이제 는 효도와 양애에 대한 보답이 언제 사라질지 두렵기까지 하다.

따라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과 학교에서 또는 언론과 교육부, 교육청에서 부모와 스승께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도록 권장 내지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

이전에 5월이 되면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한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이메일 문자나 휴대폰 메시지가 발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나 건성으로 일부 학생들이 보내기도 하지만 드물게 되어 버렸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감사함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편지쓰기를 부활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보은이나 안부전화를 하도록 했으면 한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을 길러 주거나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산신직이 그 정도는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산신직이요 산체함이 아닌가 여겨진다.

특히 농어촌에 계신 부모나 선생님께 꼭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도록 강력히 권장했으면 한다.

▲수정렬·광주시 서구 회장동

無 等 鼓

세익스피어는 희곡 ‘사랑의 헛수고’에서 아내를 뺏길까 걱정하는 남편들의 심리를 잘 묘사했다.

“나무들마다 쿠쿠(Cuckoo·뺨꾸기)가 쿠쿠 노래하네/ 결혼한 남자들을 조롱하네/ 쿠쿠하며 노래하네/ 쿠쿠 무서운 단어여/ 결혼한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히네”

남의 아내를 뺏은 남자를 영어로는 뺨꾸기라고 한다. 간통(Cuckoldry)과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남의 동지에 알을 낳아 집을 빼앗는 뺨꾸기의 습성을 감안한 것이다.

제프리 초오서의 ‘새들의 회의’를 보면 미모의 여신 헤라는 뺨꾸기를 수호신으로 삼고 사는데 헤라의 미모에 홀린 제우스 신이 뺨꾸기 털을 쓰고 접근해 간통을 한데서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서양 문화와 신화에 비친 간통은 약간의 낭만적이다. 이런 배경 탓인지 서양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다. 근대법 정선에 따라 자유의사에 의해 결합하는 간통은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있다. 미국·영국·러시아·캐나다

등 대다수의 나라들은 간통은 분노의 대상이지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닌 일장이다. 프랑스에서는 간통이 부부의 집에서 벌어졌을 경우에만 처벌하고, 일본에서는 간통자에게 손해배상청구는 할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통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여에서 간통한 사람을 잡아 죽였고, 고려 충렬왕은 후궁 무비가 간통한 사실을 알고 많은 신하 앞에서 그녀를 죽였다. 후고구려 궁에는 아내 강씨가 간통했다 하여 벌경계 달아오른 쇠로 궁형(宮刑)에 처했다.

조선시대에는 상민들끼리 간통이면 곤장 100대를 때려 3년간 유배시켰지만 양반의 부녀자가 간통하다 적발되면 교수형에 처했다.

국내에서도 조만간 간통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4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폐지에 찬성하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보도도. 간통죄가 4년5개월에 역사속으로 사라질지 관심이다. /정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점국 2200-66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6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체육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디지털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